

희망복지기동서비스단 운영

- 소외받고 그늘진 일반주민에게도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 거동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복지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취약계층에게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이동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극대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 ~ 11. (주 1회)
- 장 소 : 11개 읍·면 마을
- 참여인원 : 25명(이동 상담반 5명, 순회 서비스반 20명)
- 사업내용
 - 기동서비스반(수시)
 -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복지욕구를 신속히 상담·조사하여 즉시 해결 또는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 순회서비스반(매주목요일 읍면 순회 9개 분야)
 - 이동빨래방, 이동목욕·청소서비스, 농기계수리, 전기점검 및 수리, 한방진료, 칼갈이서비스, 안경수리지원
 - 찾아가는 어려운 이웃 돌봄의 날 운영
 - 매주2회 복지담당공무원(읍면장 동행)과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 시행결과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8개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일괄 제공
- 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만 지원되었던 사업을 일반주민과 함께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복지 수혜 체감도 향상
-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 구성·운영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내방 위주 민원처리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처리하는 수혜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

-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반’ 출동으로 오지마을 순회서비스를 실시하여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수혜 체감도 증가
- 기동서비스 항목 중 2017년 신규서비스 칼같이서비스와 한방진료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 주민들의 농부증 치료에 기여

□ 향후계획

-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및 2018년에는 안경수리 및 돈보기지원을 전남과학대학교 안경광학과 서비스 실시로 복지의 갈증 해소
-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여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충족
 - 서비스 제공 후 설문조사를 통해 신규 서비스 발굴 및 문제점 해소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복지수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복지 체감도 향상으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 참고자료



곡성군,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에 ‘칼같이 무료봉사’ 재능기부



[전남소식] 곡성군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 운영

송고시간 | 2017/03/05 10:57

f t G+ BAND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오지마을 취약계층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 운영단에 “칼같이 무료봉사단”이 신규로 합류하여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도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는 3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지마을을 찾아가 9개분야 이동목욕, 이동헬레방, 이동청소, 농기계수리, 전기수리, 한방진료, 전자제품수리, 통합사례관리,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 운영하고 있으며, 4월 13일부터 곡성하늘빛교회(오전섭 목사)에서 ‘칼같이 무료봉사’를 지원하여 기동서비스단에 합류하게 됐다.

(곡성=연합뉴스) 전남 곡성군이 오지마을 취약계층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 운영,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실

희망복지팀장 신봉균

주무관 이형지 (☎행 8405)

곡성군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

- 스마트폰 대중화와 소셜미디어 사용 급증에 따른 군 SNS 구축 및 홍보 강화
- 블로그와 SNS를 활용하여 쌍방향 소통을 통한 군민 알권리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1. ~ 계속
- 내 용 : SNS 운영 내실화와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 주민참여와 군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 수행 및 군정 홍보
- 주요수단 : SNS 총 5개 계정(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티)

□ 주요성과

- 곡성군 공식 블로그 및 SNS 운영 대행용역 추진 : 2건 / 45,600천원
- SNS 홍보 콘텐츠 이미지 제작 및 월별, 분기별 활성화 이벤트 실시
- 군 공식 블로그 및 SNS 계정 곡성 군정 및 관광관련 포스팅 : 500여회
- 포털사이트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실시 : 8회
- 제2회 곡성군 소셜미디어 사진전 개최 : “곡성에서 어디가 중헌디”
총 201점 접수 / 입선작 37점(저작권, 사용권 곡성군 소유)

□ 향후계획

- 곡성군 SNS 이용 활성화를 위한 월별, 분기별 홍보 이벤트 추
- 타 시·군 SNS 이벤트 및 공모전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
- 포털사이트 파워블로거 팸투어 및 SNS 통한 곡성군 홍보 추진
- 전문작가를 활용한 포스팅으로 곡성이야기 확산과 양질의 콘텐츠 제공
- 제3회 소셜미디어 사진전 개최 : 2018. 10. ~ 11월 중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

- 노인인구 증가와 빈집이 많은 농촌 현실에서 농산물 등 각종 도난 사고 예방
- 어린이, 부녀자, 노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안전한 생활보장

추진방침

- 마을방범용 CCTV 설치 4개년 계획 수립(2016~2019)
 - 소요예산 : 1,225백만원
 - 272개 전체 마을 대상 방범용 CCTV 설치(마을별 2대)

시행결과

(단위 : 마을 / 백만원)

구분	합계	완료			예정		
		계	2016	2017	계	2018	2019
마을	272	128	28	100	144	100	44
사업비	1,264	544	96	448	720	500	220

- 방범용 CCTV 설치 기대효과
 - 쓰레기 무단투기, 도난 등 범죄예방 효과
 - 인구 노령화와 공가가 많은 지역 특성상 효과적인 방범 시스템

향후계획

- 2019년까지 관내 모든 마을에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참고자료

- 현장조사 및 주민 협의



○ 시공(현장사업추진)



○ 보도자료



안전건설과

주정노 팀장

주도현 주무관

(☎행 8792)

기차당 뚝방마켓 행사 운영

- 전통시장 인근 유희공간(뚝방길)을 활용하여 주민 참여형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특색있는 문화장터로 자리매김
- 기차마을, 전통시장 등 인접한 지역 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마케팅 활용

□ 사업개요

- 운영시기 : 2017. 3. ~ 11.(월2회/둘째, 넷째주 토요일)
- 장 소 : 기차마을전통시장 인근 하천변(뚝방길)
- 참 여 : 50팀 내외(뚝방마켓협동조합, 관내외 주민 및 상인)
- 행사주체 : 곡성군, 뚝방마켓 협동조합
- 내 용 : 수공예품, 농산물·가공품, 먹거리 판매, 체험, 재능기부 문화공연 등

□ 시행결과(결과분석, 주요성과 및 시사점)

- 운영실적 : 15회 754여팀 참여(관내 59%, 관외 41%)
 - 방문객 35,930명/ 판매액 122,172천 원
 - 주변 식당가 매출액 180% 증가(전통시장 인근 식당가)
- 갤러리뚝방(전시, 체험) 시범 운영 및 주변 관광상품 연계 활용
 - 체험프로그램 5개 과정, 전시 4종 110여개 작품
- 지역 사회 연계 문화 공유
 - 문화행사 : 영화제 1회, 버스킹 1회, 재능기부 공연 3회, 청년네트워크파티 1회
 - 주민참여 : 어린이뚝방마켓 1회, 지역 학교 기획전시 2회

□ 향후계획

- 뚝방마켓 행사 확대 운영 : 월1회 ⇨ 월2회(매월 2, 4째주 토요일)
 - 참여자 50팀 ⇨ 70팀/ 참여품목 확대
- 뚝방마켓 협동조합 주도성 강화
 - 군 주관, 민 참여 모델에서 민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하는 주민주도 행사로 발전

□ 참고자료



곡성군 보도자료

www.gokseong.go.kr

보도협조일 : 2017. 12. 8.(금)부터

자료배포일 : 2017. 12. 8.(금)부터

배포부서 : 기획실 홍보팀 박홍남(061-360-8227)

담당부서 : 지역활성화과 지역마케팅팀 팀 장 심세희(061-360-8757)

주무관 최철호(061-360-8758)

곡성 뚝방마켓 잠시만 안녕! 내년 3월에 만나요!

- 곡성기차당뚝방마켓, 동절기 휴식기 이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
것 -

곡성천변을 노랗게 수놓았던 곡성 기차당뚝방마켓이 금년도 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재개장을 위한 휴식기에 들어간다.

기차당뚝방마켓은 2016년 5월 21일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부근 곡성천변에 첫 장을 열었다. 처음에는 매월 한번씩 운영되다가 인기에 힘입어 올해부터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오후에 2번씩 개장하며 많은 방문객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봄바람 휘날리는 3월부터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지는 11월까지 기차당뚝방마켓은 매 장마다 색다른 재미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며 지금까지 5만여 명이 넘는 방문객과 1억 7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다. 또한 섬진강기차마을과 읍내 상권의 중간에 위치한 뚝방마켓으로 인해 관광객이 읍내로 유입되는 매개체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뚝방마켓이 열리는 날에는 주변 식당가 매출액이 180%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할만한 것은 매출액의 크기보다 지역민들의 숨겨진 작은 재능들이 뚝방마켓을 통해 표출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이 가진 솜씨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조금씩 이해

함으로써 일상화된 단절에서 벗어나 소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서로 개별적으로 ‘존재’ 하던 개인들이 똑방마켓을 통해 서로를 ‘인식’ 하게 되고, 재능과 문화를 나눔으로써 ‘관계’ 를 맺게 된 것이다.

지역의 어린이집과 함께 한 어린이 똑방마켓은 아이들이 손수 만든 아기자기한 작품을 전시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전해주었다. 지역 초등생들이 참여했던 아나바다장터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사람들과 소통하며 경제관념을 배우기도 했다. 곡성고, 한울고, 곡성중 등 중고등학교 동아리반 학생들의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과 재능기부 그리고 학생 셀러 참여를 통해 꿈과 끼를 나누는 문화공유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갈고 닦은 악기, 춤, 노래를 수줍은 모습으로 선보이는 학생들을 보며 주민들과 관광객은 풋풋함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똑방마켓의 모습은 마치 누군가를 압도하거나 인위적인 거대함을 내세우지 않고 편안한 안식을 주는 곡성의 자연경관과도 묘하게 닮아있다. 그래서인지 똑방마켓을 찾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유유히 흘러가지만 재촉함이 없는 섬진강의 여유가 느껴지는 듯하다.

곡성군은 똑방마켓을 성공적인 민간주도 사업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작년 10월 똑방마켓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조합과 함께 똑방마켓을 운영해 오고 있다. 조합은 셀러들과 함께 자신들의 상품을 기부하며 SNS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고, 방문객과 함께 장기자랑 등에 참여하며 문화장터라는 똑방마켓의 가치에 스스럼없이 녹아들었다. 또 찾아가는 영화 상영, 청년참여 문화모임 개최 등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곡성 기차당똑방마켓은 매월 참여신청을 받고 있다. 초창기 30여명의 셀러에서 시작해 현재는 50~60팀의 셀러가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품목도 수공예품과 먹거리, 농산물가공품, 중고물품, 체험거리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이고 있다. 셀러는 곡성 지역주민이 60%이고 광주·함양·장수·광양·구례·순천·전주 등 타 지역에서 참여하는 셀러도 40%가 넘는다.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입소문을 타고 인근 지역에 알려지면서 참여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매회 똑방마켓 행사가 끝나면 셀러들이 함께 둘러앉아 잘된 점은 서로 칭찬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가는 열띤 토론으로 장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주기적인 벤치마킹과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마켓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셀러들은 서로 단합하고 스스로가 똑방마켓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높은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행동과 노력들이 모여 곡성기차당똑방마켓을 다른 곳과 차별화하여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곡성군은 이번 똑방마켓 동절기 휴장을 맞아 곡성천변아래까지 똑방마켓을 확대 조성하고 방문객 쉽터, 함께 나누는 공간, 주변 환경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셀러 교육, 벤치마킹 추진으로 똑방마켓의 품목다양화, 차별화를 통해 품격을 높이고 양질의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똑방마켓 거리 옆에 조성된 갤러리똑방을 똑방마켓협동조합이 운영자로 결정되면서 조만간 주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체험, 전시공간이자 문화공유의 장으로 상설 운영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2018년부터 추진되는 ‘6070 낭만곡성 영화로 청춘어람사업’과 연계하여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상품기획, 제작, 판매 활동의 인큐베이팅 플랫폼 역할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며, “곡성 기차당 똑방마켓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이웃들 모습을 통해 소소한 행복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내년 똑방마켓을 기약했다. 다가올 2018년 3월에는 곡성 기차당똑방마켓이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올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지역활성화과 지역마케팅팀장 김민 최철호 주무관 (☎행 8758)

곡성관광택시 운영

- 곡성군을 방문하는 개별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친절하고 전문적인 문화관광 지식을 갖춘 관광택시 운영으로
- 관광객이 원하는 시간, 장소, 여행코스에 맞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안내

□ 사업개요

- 운영대수 : 8대 (예약콜센터 1522-9053)
- 운행방식 : 평소 택시운행을 병행하면서 콜센터로 사전 예약된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택시 운행
- 운영코스 : 4개 코스(기차마을, 섬진강, 대항강, 옥과권)

□ 시행결과(결과분석, 주요성과 및 시사점)

- 2017년 관광택시 이용실적 : 314대, 942명(누적 356대/ 1,068명)
- 교육 및 간담회 : 4회
- 관광택시 홍보 및 안내 : 홈페이지, 언론보도 등
 -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방송신문 등 100여회
 - 리플릿 및 기념품 제작배부(3,000부- 관광안내소, 역, 터미널 등)
- S-train - 관광택시 연계 상품 “광택열차” 운영
 - 2017년 이용실적 : 28대, 88명
 -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 상품 등재로 인한 홍보 효과 제고

□ 향후계획

- 관광택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서비스제고, 경쟁력강화)
- 관광택시 홍보 및 교육 : 정기교육(분기1회), 온·오프라인 홍보
 - 홈페이지·블로그·인스타그램, 신문, 방송 등 SNS 활용 홍보
- 계절별, 이용자 맞춤형 관광택시 신규코스 발굴, 여행사연계프로그램 개발

□ 참고자료 : 사진, 보도자료 등

<보도자료>

남도해양열차와 곡성관광택시 결합한 '광택열차' 출시

강경록 기자 2017-08-22 14:58

22일 코레일관광개발 발표해
일요일 서울역서 출발해



남도해양열차(사진=코레일관광개발)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코레일관광개발이 전남 곡성군과 기차와 관광택시를 연계한 자유여행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남도해양열차(S-train)과 곡성의 관광택시와 연계한 상품으로 일명 '광택열차'다. 편리하게 상품을 고를 수 있는 패키지상품의 장점과 숙련된 택시기사와 함께 선호하는 곳을 둘러볼 수 있는 개별관광의 장점이 녹아났다.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20~30대 뿐만 아니라 50~60대 중·장년층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에 서울역에서 8시 4분 경 출발하는 남도해양열차(S-train)를 타고 곡성역에 도착하면 곡성관광택시가 기다린다. 도로나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운 곡성의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관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택시는 테마별 3가지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이동할 수 있다.

섬진강의 허리를 도는 1코스는 침실습지, 도깨비마을, 섬진강 천문대 등 관광지과 함께 17번 국도와 시원하게 굽이쳐 흐르는 아름다운 섬진강변을 따라 드라이브하는 짜릿함 있다.

2코스는 대항강의 낭만을 찾을 수 있는 코스로 비봉산방, 태안사, 섬진강 문화학교 등 관광지과 180m길이의 출렁다리를 흔들흔들 걸어보고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예술의 하모니가 있는 3코스는 성류사, 함허정 등 고즈넉한 사찰과 옛 정자, 그리고 시골 산 속 현대식 미술관에 잠시 들러 사색을 즐기면서 소소한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다.

테마별 코스를 달리는 곡성관광택시는 문화관광, 미디어 등 전문교육을 이수한 10명의 베테랑 택시기사가 직접 운전하며 재치있는 입담과 현지인만 아는 문화해설로 눈으로 훑는 여행이 아닌 마음에 담는 여행을 만들어준다.

광택열차 이용요금은 관광택시 탑승 4인기준 1인당 6만 9000원부터 1인 기준 10만 8000원까지다.

<사 진>



지역활성화과 지역마케팅팀장 김 민 최철호 주무관 ☎행 8758)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과 농작업 참여 확대
- 영농집중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곡성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2013. 12. 31.)
- 공동급식에 따른 급식종사자 인건비, 재료비 지원(80천 원/1일)
- 사업량 : 93개소(도비 53, 군비 40)
- 사업비 : 186백만 원
- 지원대상 : 급식 농업인 20명 이상,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마을
- 급식시기 : 농번기(상반기 4 ~ 6월, 하반기 9 ~ 11월) 중 25일
- 지원액 : 마을당 2백만 원
 - 조리원 인건비 1,000천 원, 부식비 1,000천원 지원

□ 성과분석(연도별)

사업명	추진내역	비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 제정	2013. 12. 31.
	2014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실시	46개소(도비 25, 군비 21)
	2015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실시	43개소(도비 23, 군비 20)
	곡성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조례 개정*	2015. 8. 17(부식비 일부지원 신설 및 인건비 상향 조정)
	2016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실시	67개소(도비 43, 군비 24)
	2017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추진 완료	93개소(도비 53, 군비 40)
	2018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추진	120개소(도비 67, 군비 53)

□ 향후계획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중 조리원 식중독 예방교육 및 위생점검 강화

농정과장 신동준 농정팀장 김재만 주무관 강해인 (☎행7154)

□ 참고자료 : 보도자료



곡성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주민 호응

기사입력 2017-04-24 15:34 기사원문 스크린 본문듣기 · 설정



농번기 공동급식(곡성군 제공)/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곡성=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곡성군은 농번기철 농촌일손 부족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마을회관에 취사시설 등 마을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참여인원이 20인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을 선정해 진행한다.

농번기철인 4월~11월 중 25일간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며 현재 86개 마을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가사와 영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들에게 점심준비의 번거로움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도가 높다.

김영중 곡성군 농정과장은 "공동급식은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촌의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에 특화된 서비스"라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공동체 문화조성에 큰 효과가 있어 2018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군길 조성사업

- 곡성과 관련있는 역사 속 유명한 장군과 연관된 특색있는 숲길 조성
- 특색있는 숲길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

□ 추진방침(사업개요)

- 위 치 : 마천목길(오곡 오지~압록), 신송점길(죽곡 하한~목사동 평)
- 규 모 : 2개 노선(28.5km)
- 사업기간 : 2018. 1. ~ 12.(생활권등산로 정비사업 연계추진)
- 사 업 비 : 600백만원(지특 50%, 군비 50%)

□ 시행결과(주요성과)

- 마천목 장군길 정비완료 (안내판, 안전시설보수, 풀베기 등)
 - 종합안내판 2개소, 스토리텔링안내판1개소, 목책·목계단 보수 등
- 신송점 장군길 정비완료 (안내판, 숲길조성, 풀베기 등)
 - 종합안내판 2개소, 스토리텔링안내판2개소
 - 태안사 숲길 조성 1.04km (야자매트, 데크로드, 징검다리 등)

□ 향후계획

- 장군길 노선 풀베기 등 사후관리 실시
- 노선 수시점검을 통한 목계단, 목책 등 안전시설 유지관리

□ 참고자료 : 사진, 보도자료 등



산 립 과 산림보호팀장 김종구 주무관 강미자 (☎행 8453)

농업환경자원 종합검정실 운영

- 농업환경자원(토양, 수질, 농산물 등)에 대한 분석, 검정기능 강화
- 친환경 GAP인증 농가재지원 및 현안 정책사업 관련 업무지원
- 과학적 진단과 분석을 통한 작물장해예방 및 생산비 절감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비 : 76백만 원(국비 26, 군비 74%)
- 보유장비 : ICP, IC 등 첨단 분석장비 14종, 보조장비 15종
- 검정항목 : 5종, 10항목, 55성분(토양화학성 9성분, 유해성 9성분 등)

□ 주요성과

- 토양화학성 검정을 통한 정밀 시비처방 : 8,376점/5,050점(166%)
 - 친환경, 농가의뢰관련 토양화학성검정 : 7,160점
 - 직불제, 토양개량제 살포량 측정 등 정책·연구사업 관련검정 : 1,216점
- 인증관련 유해물질 및 기타 성분분석 : 128건/150건(85%)
- 가축분뇨발효액비 검사 및 시비처방 : 97.7ha, 2,550ton 처방

□ 향후계획

- 친환경인증 등 농가의뢰 농업환경분석 지속추진
- 농업인이 원하는 추가 시험·분석요구사항 반영 필요
 - 농업인 요구사항 : 양액재배관련 원수·양액 분석 및 처방, 토양 CEC 분석

□ 참고자료 : 사진, 보도안



곡성군, 농업환경 종합검정 수요 증가

농업환경 분석을 통한 과학영농 농업경영인 증가 추세

2017년 12월 31일 (월) 15:15:03

최창윤 전문기자 ☎ choipress@newsmaker.or.kr



▲ 농업환경 종합검정/최창윤 기자(사진=곡성군)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관행적 농업을 탈피하며 첨단기술을 이용한 과학영농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농업환경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는 곡성군(군수 유근기)에서는 2017년 총 8,727건의 시험·분석을 실시하여 전년대비 검정건수가 15% 증가했으며 농업인의뢰 건수도 7,377건으로 전년 6,377건 대비 1,000여건(약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인들의 과학적 농업에 대한 요구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른 곡성군 농가호수가 5,269호임을 감안하면 농가당 1.7건을 의뢰한 셈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인의뢰 검정건수의 증가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의뢰가 약 77%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요구도를 나타내어 2016년 2,007농가가 친환경인증을 받아 전라남도 시·군중 가장 많은 농가가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금년 인증 농가호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 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매년 토양 화학성·물리성, 유해중금속, 농업용수, 가축분뇨액비 및 발아율 등의 시험·분석을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

- 농업미생물 보급을 통한 토양개선 및 고품질 농업생산기반 조성
- 축사악취저감 미생물 공급을 통해 축산 이미지 개선

□ 추진방침

- 유용농업미생물 직접 배양 및 안정적 보급
-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 '미생물을 활용한 살기 좋고 잘사는 구곡담 만들기'를 통한 시군간 미생물 공유 및 생산기반 조성
 - 올바른 미생물사용을 위한 농업미생물 아카데미 교육 운영
 - 농업미생물생산 안정화를 위한 기반장비 보강
 - 농업미생물 보급 확대

□ 시행결과

- 유용농업미생물 직접 배양 및 보급 : 토착미생물 외 4종, 71톤
 - 기존 특화 토착미생물에 더해 유용농업미생물(광합성균 외 3종) 생산 본격화
- 농업미생물 아카데미 교육 추진 : 5회/년
- 농업미생물 생산 안정화를 위한 기반장비 보강
 - 미생물배양기 1대, 자동포장기 1대, 저온진탕배양기 2대, 초저온 냉동고 등 기타 실험장비

□ 향후계획

- 농업미생물 생산 및 보급 확대 : 130톤/년 목표
- 농업미생물 아카데미 운영 : 6회/년
- 농업미생물 생산기반장비 보강 : 미생물분석기, 배양기 보강 등

□ 참고자료 : 보도자료

곡성군, 농업미생물 활용 고품질농산물 생산에 앞장

2017년 10월 15일 (일) 17:00:52

최창윤 전문기자 ☞ choipress@newsmaker.or.kr



▲ 농업미생물 활용해 고품질농산물 생산에 앞장/최창윤 기자(사진=곡성군)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4억여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구례군, 담양군과 함께 농업미생물 생산기반 확충에 나선다.

농업미생물은 작물에 사용하면 품질향상, 병해충 예방효과가 있고, 축사에 사용하면 저비용으로 악취 저감 효과가 탁월하여 수년전부터 농업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농업용 자재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농업인의 수요에 발맞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농업미생물 배양실 장비를 보강하고 농업미생물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곡성·구례·담양 연계협력 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수요가 높은 토착미생물을 발굴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배양, 보급, 공유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미생물 활용을 원하는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원하는 균을 배양해 군 상호간에 공유하여 보급하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미생물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과 농산물 고품질화가 가능하고, 축사 악취 저감에 효과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축사 환경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장

신희민 주무관

(☎행 7353)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 예방·상담·조기진단·자원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방침(사업개요)

- 기 간 : 2017. 12. ~ 계속
- 대 상 : 만 60세 이상 주민, 치매환자 및 가족
- 내 용 :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 지원, 치매노인 실종예방 지원 등

□ 시행결과

- 치매환자 등록 : 713명
- 치매조기검진 : 선별검사 4,321명, 진단(감별)검사 147명(확진 141명)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224명, 49,092천원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 치매안심마을(2개소) 운영, 캠페인홍보 실시
- 치매노인 실종예방 : 위치추적기 5개 보급 관리, 인식표 발급 등
⇒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을 통하여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포괄적인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추진 필요

□ 향후계획

- 치매안심센터 설치 : 2018. 12월 말
- 치매환자 등록관리 : 맞춤형사례관리, 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 조기발견·관리를 위한 치매조기검진 확대
- 치매환자 대상 쉼터 및 인지프로그램 운영
- 치매가족지원 : 가족교실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돌봄부담분석 등
- 치매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 : 치매극복 선도대학 지정
- 치매노인 실종예방 : 위치추적기관리, 인식표 발급, 사전지문등록

☐ 참고자료 : 사진, 보도자료 등



곡성군, "뇌 튼튼, 건강 백세"치매안심마을 2개소 선정

최홍수 기자 2017.03.12 10:00 기사입력 2017.03.12 10:00

T + -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ㆁ



아시아경제 노혜성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8일 치매안심마을 2개소를 신규로 선정해 현판식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워크북, 운동치료, 운동치료, 옛 기억 회상하기 미술치료, 노래이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월 2회 운영할 계획 이다.

행사에 참여한 현 주민은 "치매예방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건 강을 꼭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군 관계자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친화적인 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과 방문보건팀(060-75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군, '2017년 치매극복건강대회' 성황

최홍수 기자 2017.05.16 10:20 기사입력 2017.05.16 10:20

T + -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ㆁ



"장미공원 정미경기 속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아시아경제 노혜성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13일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전남광역치매센터가 주최하는 2017년 치매극복건강대회가 곡성군 성안강기차 마을 장미공원에서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장미공원에서 실시한 치매극복건강대회는 '동행, 치매를 넘어'라는 슬로건 으로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뜻 깊은 행사로, 치매에 대한 정보제공, 탄보스타커 티투 체험, 황개 따라한 치매예방체조, 영양 포이비룬드오케스트라의 강령 같은 연주 등 재원거리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행사에 진행 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치매극복건강에 참여하신 분들은 오는 19일부터 10일간 열리는 제7회 곡성세계 장미축제를 앞두고 활짝 핀 장미공원의 장미향에 취해가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기에 여념이 없었다.

김영락 보건의료행정과장은 "앞으로 치매초기검진, 치매안심마을 만들기 등 지역 사회 치매인식개선과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건과

방문보건팀장 박부승

주무관 전동임

(☎행 7582)